

바람·습기마저 담았다... 민초들의 시간 '호출'

광주시립미술관 민중화기 강요배 초대

4·3과 5·18항쟁 정신 한 전시서 구현 40점 선배 '시간을 품다' 주제로 9월 27일까지 발사취 조망 4·3기록화 연작... 신작 3점·광주 투영 5점 눈길

“제가 민주 평화 인권 전시에 초대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도 사골에서 사는 노인인데 여기 큰 도시에 이렇게 좋은 전시장에서 전시를 열게 해줘서 아주 고맙다는 입장이지요.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마디) 그러니까 글썄요. 우리가 매일 참혹한 거 생각하면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다독이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지나치게 막 하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무언가 이겨내겠다는 희망이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만 너무 곱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죠.”

첫번째 개인전이 열린 1976년 이후 올해 50년을 맞은 그는 광주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잡았다. 제주에서는 민중화기조간판 같은 존재다. 그리고 제주 바람과 습기마저 그림에 담는 화가로 불린다.

이런 그에 대한 입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그를 꾸준히 미술계에서는 찾고 있다. 그 또한 광주 하면 민주인권평화가 상기된다는 반응이다. 민주인권 평화도시인 광주에서 도시 콘셉트에 맞게 전시를 열게 돼서 영광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이다. 주인공은 1989년 제주의 감춰진 역사에 눈을 뜨면서 교직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전 서울 근교의 한 농가에 파견돼 3년간 50평의 '4·3연작'을 완성했으며 1992년 '제주민중항

쟁사건전'을 연 후 고향인 제주도에 정착해 민족 미술인협회 회장과 제주 4·3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활동을 펼쳐온 강요배 화가가 그다.

자본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을 주로 그려온 탓에 민중지향적 화풍에는 근원적 슬픔이나 그리움, 외로움이 묻어나는 동시에 삶 본연의 서정성이 표출되는 듯하다. 지난 13일 전시장에서 만난 그는 질문에 비교적 단답형으로 답변했다. 무언가 늘어지는 것보다는 짧은 울림의 단어들 선호하는 인상이 들었다. 외무에서는 화가가 아니었으면 무엇을 했을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여러 어려하면서도 풍기는 이면에 감춰진 카리스마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광주에서는 네차례 정도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가졌지만 이처럼 결산 같은 전시는 처음이라고 한다.

그의 전시는 민주인권평화라는 명목 아래 지난 8일 개막, 오는 9월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2전시실에서 '시간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 전시는 초입에 설치된 '망월'에서부터 압도된다. 그동안 광주시립미술관이 추구해 온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담은 작품으로 전시 취지에 부합된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13년 '오월-1980년대 민중미술' 개최를 계기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조명하는 연례전시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수풍교향’

그 연장선상의 전시로 이해하면 된다. 그는 제주 4·3항쟁의 역사를 시각 언어로 드러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민중미술의 언어를 인간 보편의 차원으로 확장하는데 힘을 써 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제주 귀향 이후의 풍경 연작, 그리고 최근작에 이르는 작업활동에 들어간 60여년의 예술 발자취는 물론, 작가 개인과 시대의 기억이 집약된 시간의 층위 속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어떻게 회화적 언어로 축적되고 변주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제주에서 태어난 작가에게 침묵과 억압 속에 짓눌려 있던 제주의 풍토는 자신의 오감을 공감각적으로 일깨우는 단초를 제공해줬다.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거친 뒤 1980년대 '현실과 발언' 동인으로 활동하며, 군사독재 치하의 현실을 날카로운 필선으로 예리하게 포착했다.

그의 회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시간이다. 물감을 덧칠하고 밀어내며 겹겹이 층위를 쌓는 시간의 표현 방식은 단순한 표면 집감을 넘어 작가의 몸이 시간을 거둬 통과한 흔적들이 화면에 투영된다. 그가 즐겨 그린 제주의 바다와 바람, 돌과 하늘은 단순히 풍경의 소재로만 머물지 않고, 모

든 기억과 역사적 감각을 현재의 시간 앞에 다시 불러내 보는 촉매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출품작은 40여점과 아카이브로, 대구시립미술관 소장작인 '수풍교향'을 비롯해 '인간을 도우시다', '폭포 속으로' 등은 대작들로 압도적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다. 작품 '폭포 속으로'는 시립미술관 벽 높이가 6m 70cm인데 6m 60cm로 아슬아슬하게 설치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출품작 중 제주4·3기록화 연작을 영상작품으로 재제작한 '동백꽃 지다', 이번 광주 전시를 맞아 5·18항쟁을 투영한 신작 '망월(望月)'과 '철목(鐵木)', '광음(光音)'은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소개된다. 5·18 관련작품은 '태극도'와 포스터 형식으로 만든 '1980. 5.27. 01:00. 한반도'가 더 있다.

큐레이팅을 맡은 홍윤리 학예사는 “강 선생님이 워낙 대작들을 작업하기에 벽이 넓은 광주시립미술관과 잘 어울릴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현재 선생님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작이 많은 이유이다. 그래서 현대에서 과거로 가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요배 화가는 현재 한림읍에 머물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mailto:rainidea@gwangnam.co.kr)



‘광음(光音)’



문화예술로 빛나는 민주·인권·평화 가치 '일상 속으로'

'ACC 오월문화주간' 18일부터 프로그램 '풍성' 공연 '시간을 칠하는...' 옛 전남도청 개관행사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확장시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ACC 일대에서 '2026 ACC 오월문화주간'을 운영한다.

'ACC 오월문화주간'은 ACC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로 승화하고,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확산하고자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행사다.

이번 주간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월 정신을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먼저 오는 5월 레퍼토리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14~17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인다. 지난 2018년 '제1회 ACC 스토리 공모전' 선정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작으로 첫선을 보였다. 전남도청 철창이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개되는 가운데 비극적인 현대 역사 속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관객이 바뀌가 달린 이동형 객석에서 이야기의 흐름과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극장을 여행할 수 있는 이 공연은

기계의 힘으로 전환하는 무대가 아닌 오롯이 배우들의 힘으로 극의 흐름에 따라 시·공간을 이동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어 ACC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공동으로 창제적해 29~30일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릴 오페라극 '세 번째 전쟁'은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지난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시범 공연을 통해 관객과 의견을 공유한 뒤 올해 완성작으로 선보이는 무대다. 마법어 존재하는 가상 세계 및 국가를 배경으로 세 국가의 전쟁을 각기 다른 서사로 풀어낸다. 작가 겸 연출가 박본의 대본에 작곡가 벤 뢰슬러의 강렬한 음악을 더해 몰입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오는 6월 21일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선보일 '침묵, 그 고요한 외침-폴란드 포스터'전은 검열과 억압 속에서 표현을 멈추지 않았던 1950~60년대 폴란드 포스터 학파(Polish School of Posters)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전시로, 뉴욕타임스가 '단순한 디자인 전시가 아닌, 이미지가 시대를 말하는 표현의 역사'라고 극찬한 바 있다. 오월 광주의 정신과 맞닿아 있어 저항과 연대의 감각을 환기시킨다.

또한 오는 9월 21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진행되는 ACC 필름엔비디오 '아시아의 장치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장민성 작가의 작품 '동글고 동글게 익스텐디드 에디션'은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작품의 확장판으로, 5·18민주화운동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국 사회가 지나온 역사적 변곡점을 영상과 음악으로 재구성했다. 전시장의 3층에서 펼쳐지는 대형 파노라마 영상이 주목된다.

아울러 출품작 '멜팅 아이스크림'은 수해를 입은 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장고에 보관돼 있던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사진 필름의 복원 과정에서 출발한 흥진희의 첫 다매뉴얼러 영화다. 전시에서는 영상 작품에서 파생된 '녹아내린 필름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사진 연작 '멜팅 아이스크림 인덱스'를 함께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인 옛 전남도청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함께 개관식을 갖고 정식 개관한다.

이외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오월이야기퍼즐' 등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ACC 민주·인권·평화 영상(+AI) 콘텐츠 공모전'과 'ACC 평화이야기 보관소' 등이 운영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 새롭게 탐색 프로젝트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17일까지 작품 선봬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올해 입주작가인 알렉산드르 소콜로프(Alexandr Sokolov)와 이반 칼리니체프(Ivan Kalinichev)의 결과보고 전시를 열고 있다.

'The Status of Virtual Objects'라는 타이틀로 진행 중인 이번 보고전은 증강현실(AR)과 비주얼 노벨 형식을 기반으로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과 현실·가상의 경계를 새롭게 탐색하는 프로젝트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전시는 AR을 단순히 현실 위에 덧입히는 디지털 기술로 사용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가상을 현실과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과 도시 환경 속에 깊숙이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층위로 바라본다.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전시장과 주변 공간을 탐색하며, 익숙한 도시 풍경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장면과 서사를 마주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메인 스토리(Main Story)와 사이드 퀘스트(Side Quest), 포스트 크레딧신(Post-Credits Scene) 등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된다.

먼저 메인 스토리에서는 AR이 결합된 대형 패브릭 프린트 작업 7점을 중심으로 도시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다. 길고양이, 도시 시설물 등 일



상적인 요소들은 낯선 서사 속 존재로 변형되며, 현실을 바라보는 익숙한 감각을 흔든다.

이어 사이드 퀘스트는 관람객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으로 웹카메라와 스크린, 노트북으로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스스로 작품의 일부가 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크레딧신에서는 다수의 프로젝트와 스크린으로 구성된 영상 설치 공간이다.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감각과 이미지의 흐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보다 사유적인 경험을 제안한다.

알렉산드르 소콜로프와 이반 칼리니체프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된 비주얼 노벨 형식을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 현실이 하나의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관점과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기술을 활용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동시대 도시 환경과 감각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현기 대표는 이번 전시에 대해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익숙한 도시 풍경이 전혀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남 문화예술 사업지원 2차 접수 문화재단,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남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6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추가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공모는 전남 지역 예술활동지원사업이 대상이며, 총 35건 내외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술활동지원사업은 문학, 시각, 공연 분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으며 문학은 창작 작품집 발간, 시각은 전시 활동, 공연은 공연작품 심연을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은 재단 누리집(www.jnc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오는 26일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61-280-5828.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